

진제종정예하 뉴욕에서 세계종교지도자들에게 법문

종교인들도 환경과 생태학적 위기에 힘을 모아야

진제 종정예하는 지난 10월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더글러스 코우 목사 등 미국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만찬을 갖고 10월 4일에는 뉴욕 유엔플라자 빌딩에서 세계종교지도자 모임에 참석했다. UN 산하 종교기구인 뉴욕 종교간 대화센터(New York Interfaith Center)와 교회 등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 종정 예하는 “세계평화와 생태학적 위기-불교의 지혜”라는 주제로 불교인을 비롯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주요 종교 인사들에게 설법했다.

종정 예하는 ‘세계 여러 종교들 간의 대화 가 인류와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신적 토대였으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기아와 질병, 차별과 억압, 투쟁과 환경오염 등의 난제들로 가득한 지구촌을 선도해 왔고 만민에게 평화를 꿈꾸게 하고 있음’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종교인들이 앞장서 화해하고 실천하자고 역설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종교들이 존재하고, 신뢰하고, 수행하는 이유이며 의무라고 믿습니다. 산승도 그 의무를 다하기 위

해 한편으로는 만민에게 참선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을 널리 유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호단체와 환경단체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라는 의지를 밝힌 종정예하는 또한 “참선을 통해 참나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우리’가 되고, 이기심이 이타심이 되며, 아만심이 자비심이 되어, 모두가 기꺼이 이웃을 돕고 우리의 보금자리인 지구촌을 보살피게 되며 반목과 갈등,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법문을 전했다.

법문에서 종정예하는 특히 지구촌의 생

태학적 위기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환경과 생태의 파괴는 곧 인류와 지구촌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나와 여러분과 더불어 들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며 나와 자연의 둘 아님을 설명한 종정예하는 “우리는 불경과 성경, 코란 등 성전(聖典)뿐만 아니라 정(情)이 없는 저 돌덩이와 물 그리고 자연도 한량없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 무정물이 설하는 진리의 말씀까지도 들을 수 있을 때, 지구를 위협하는 생태학적 위기와 환경문제에서 벗어나 지구촌은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행사에는 세계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운동가들도 참석해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지구촌의 위기로 보고 불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 난제를 풀자는 종정예하의 제안을 귀담아 들었다. 뉴욕에서의 이번 종정예하의 법문은 환경과 생태의 복원과 치유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해 세계 종교인의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불교적 지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진제 종정예하의 세계종교지도자 모임 법문)



총무원장 자승스님,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중국에서 이웃종교 체험 한국 종교계 지도자들의 상호존중과 화합 상징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월 4~7일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배인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천도교 임운길 교령, 유교 최근덕 성균관장, 원불교 김대선 문화사회부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단 지도자들 총30명과 함께 “2012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 체험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자승스님)에서 주관한 이번 중국 순례는 이웃종교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 하자는 취지의 해외 성지순례로서 2010년에는 로마·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캄보디아를 방문했으며 올해는 세 번째로 치러진 행사였다. 순례단은 중국 베이징과 공자의 고향인 곡부 등에서 공자 유적지 순례행사를 개최했는데 4일에는 베이

징에 위치한 중국 최고(最古) 학당인 국자감과 공묘를 방문했고 5일에는 유교의 본산인 중국 산둥성(山東省) 취푸(曲阜)를 방문했다. 취푸에서는 학술 연구·교류와 공자 문물 수집·보관을 담당하는 공자연구원에 들러 원장과 환담의 시간을 가진 뒤 공자의 위패와 신위를 모신 공묘(孔廟), 후손들이 생활했던 공부(孔府), 후손들의 묘인 공림(孔林)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삼공(三孔)을 방문했다. 7일에는 순례단 전원이 타이안(泰安)의 태산(泰山)에 함께 올랐다.

한국종교지도자 협의회의 이웃종교 체험 성지순례는 다양한 종교들의 화해와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행사이다. 각 종교 지도자들은 “성자들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은 믿음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누구나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이웃종교의 교리 자체를 믿고 따를 수는 없어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각 종교들이 정신문화의 가치와 참된 지혜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자승스님은 “이번 행사는 한국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합동 성지순례를 통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종교계 수장단의 친밀한 교류는 한국 교계가 상호이해와 상생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신적 주춧돌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국내외 지역사회에 밝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는 '참좋은인연 BUD'

한국불교대학 대(大)관음사에서 2010년 8월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참좋은인연 BUD(이하 BUD)는 국내외 지역사회 및 저개발국가에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희망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국제구호 NGO

이다. 해외교육지원사업, 의료보건지원사업, 식수개선사업, 위생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BUD의 국제구호 사업 가운데 해외교육지원사업은 2010년 10월 네팔 포카라 라쪽마을에 설립한 BUD 보육센터 건립으로 시작되었다.



〈네팔 포카라 라쪽마을의 BUD 보육센터〉



포카라 시내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40여 분 가야 하는 히말라야 산기슭에 위치한 라쪽마을 유일의 무료 보육센터인 BUD 보육센터에는 2세~5세 아동 60여 명이 등록 중이다.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5명의 선생님들이 그림 그리기와 영어 등을 가르치고 있고, 아동들은 점심을 과 교복, 문구류 등을 지원받는다. 현재 BUD는 더 많은 아동들의 등록을 위한 BUD 보육센터 증축을 지원 중이며 내년에 완공 예정이다. 이외에도 또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의 룸비니 프르니하와마을에 BUD METTA 스쿨을 건립하였고, 카트만두 근교에 위치한 BUD GOKARNA 스쿨에는 교실 및 컴퓨터 랩실의 증축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베트남 및 네팔 룸비니 보육센터 건립을 지원할 예정

이다. 이외에도 미얀마 난민 어린이의 의료비와 보건소 설립을 지원하는 의료보건사업, 네팔에 워터 펌프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식수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BUD 스쿨이 위치한 마을 중심으로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네팔 포카라에 커피농장을 운영하여 주민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국내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내의 초·중고, 대학생들을 위해 희망 드림 캠프를 개최하고 희망드림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 및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BUD 청소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참좋은인연 BUD 후원 문의 1666-0825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카이스트 학생들의 범주사 템플스테이

지난 9월 23일 새벽 3시, 속리산 범주사 대웅보전은 새벽 예불을 드리러 온 외국인 학생들로 가득찼다. 스웨덴과 파키스탄, 프랑스, 카자흐스탄, 미국 출신의 이들은 34 명의 카이스트 유학생들로 한국의 사찰문화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가 주관하고 대전 충청전법단이 후원한 '대전충청 지역 청년 불교문화 국제교류 템플스테이'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됐다. 카이스트 내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행사는 외국 학생들이 한국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국제포교사회는 기존 템플스테이에 '맛깔난 사찰음식'과 '그룹 토론'을 추가해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연잎밥, 두부소스 샐러드, 우영구이, 오미자화채 등 지상스님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14 가지 사찰음식으로 구성된 뷔페식은 인기 폭발이었다.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직접 요리를 해먹는다는 독일인 예카트리나는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어서 세 접시나 먹었다"며 "사찰요리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룹 토론 시간에

는 '삶은 고통인가 행복인가', '시각 장애인에게 노란색을 설명하는 방법' 등의 주제로 스님과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며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튿날 보관스님과 함께한 다도 시간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이 쏟아졌다. '스님은 왜 결혼하면 안 되나'부터 '한국과 일본 불교의 차이점' 등 한국과 불교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틀에 걸쳐 사찰 탐방, 참선, 예불과 108배 등을 체험한 학생들은 숨 가쁜 일정에도 만족스러워했다.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참가했다는 카이스트 외국인학생회 회장 수이왕은 "아름다운 사찰에서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정말로 좋았다"며 "학교의 친구들에게 템플스테이를 적극 추천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국제포교사회는 예상보다 뜨거운 학생들의 반응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배광식 회장은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 사찰음식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며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게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_ 국제포교사회



방글라데시 불교탄압에 대해 조계종 성명 발표

지난 9월 말, 한 불교도의 페이스북에 코란을 불태우는 사진이 실렸다는 소문 때문에 흥분한 방글라데시 무슬림(이슬람교도) 수천 명이 방글라데시 남쪽 해변도시 콕스바자에서 이를 동안 소요를 일으켜 불교 사원과 주택들이 불에 탄 사건이 발생했다. 무슬림들은 한밤중에 불교도 지역에 몰려가 불교 사원과 가옥에 불을 질러 20여 명이 다쳤고 불교도 수백 명은 긴급대피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에서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피해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이번 사태로 많은 불교 신자들은 폭도들을 피해 가톨릭 교회 등으로 대피한 채 불안에 떨고 있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사진 한 장과 소문만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서 그간 방글라데시에서 소수민족, 소수종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1억5천만 명의 방글라데시 국민 가운데 불교도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조계종은 "소수민



족, 소수종교에 대한 다수의 핍박은 종교를 떠나 그 어떤 이유로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써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이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은 또 다른 오해와 참극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계종은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방글라데시의 소수민족과 소수종교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 세계 불교도들과 함께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소수종교인들에게 지속적 관심을 가지며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라오스를 거점으로 “해외로 뻗어나가는 나눔결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0월 13~18일까지 불교계 대표 자원봉사 조직인 대한불교조계종 직할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라오스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오스 드림센터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치원 교실 창틀 교체작업, 화단 가꾸기 등의 환경보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본 재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루앙프라방 등 해외 성지순례를 통해 불교 문화의 자취를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보다 앞선 8월 25~30일 간에는 어린이집 원장협의회 연수를 통해 국내 보육 전문가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라오스 드림센터 유치원을 방문하여 보육현황 점검, 운영코치 등을 해주었으며 유치원 환경미화도 함께 했다. 이러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노력을 통해 라오스 드림센터 유치원이 지역 내 보육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라오스의 타 보육시설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재단은 또한 유치원 인근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국내 불자의료진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파견하여 라오스 내 병원, 장애인 재활시설 등 소외된 곳을 찾아 의료봉사를 펼치고, 대학생 해외봉사자를 라오스 사찰에 파견하여 사찰보수 봉사활동, 벽화 봉사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근 초·중·고교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라오스 의료 수준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아를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을 지원하는 난치병환아 수술지원과 아울러 해외 라오스 스님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문화체험과 불교복지시설을 견학하는 문화복지 교류사업도 추진예정이다.

이번 유치원 방문은 라오스 드림센터 유치원 준공 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해외사업장 운영을 도모하고, 국내 자원과 해외 개발도상국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라오스 드림센터 유치원을 거점으로 라오스 정부와 지역 내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영봉스님과 함께하는 히말라야의 꿈 ‘세종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

네팔 카트만두와 히말라야 오지 파쁘레마를 그리고 태국의 미얀마 난민촌 누포캅프와 메솟 새생명학교에 교육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는 영봉법명 스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에 무료 교육 사업과 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스님은 2008년 네팔 카트만두에 ‘세종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 (이하 세종언어교육원)을 설립했다. 세종언어교육원은 2008년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5년 동안 매년 3학기 제로 운영, 이미 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 중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여 한국 고용 인력으로 취업한 졸업생도 벌써 백여 명이 넘었다. 졸업생들 중에는 네팔 현지 한국어여행객의 여행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팔 주재 한국 상사에 취직을 한 사람도 상당수 된다. 세종언어교육원의 교육은 한국어가 우선이지만 한국의 문화와 예절, 한국 불교와 역사, 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다. 물론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다만 이들이 학습할 교재만 원가로 제공하고 있다. 요즘은 세종언어교육원의 교육수준이 좋다는 평이나 매 학기마다 많은 입학생이 몰려와 부득이 무학인 가난한 사람과 무직인 사람 중에서 면접을 통해 인성과 자질을 보고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입학 후 철저한 학사과정을 통과해야만 졸업장이 주어진다.

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강원도 왕산면 대گیری 작은 토굴에 4개월 정도 기거하면서 재배한 오가피를 여러 날을 달여 즙을 내 지인들에게 나눠주면 그 보답으로 들어오는 보시금과 몇몇 도반과 지인들이 후원해 주는 것으로 충원하고 있다. 스님이 하는 일에 불자들이 모여 ‘히말라야의 꿈’이라는 후원회를 만들어 작은 마음을 보태고 있으나 매년 늘어나는 학생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스님은 “이 일도 수행의 한 방편”이라며 “힘들다고 수행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잠시도 쉬지 않고 학사업무를 손수 챙긴다. 울어붙는 무더위가 찾아와 학생들이 먹는 물 값을 대기에도 힘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땀을 흘리며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만 보면 가슴이 시원해진다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땀을 흘리면 그만큼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냐고 한다. 스님은 일 년 중 4개월 정도는 국내에 들어와 오가피를 수확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8개월 정도는 네팔과 태국에서 무료 교육 사업을 한다. 스님이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은 다음카페 ‘히말라야의 꿈’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위) 영봉스님 수업 모습
(아래) 카트만두의 세종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

라오스 드림센터 유치원은 지난 2011년 12월 7일 준공식을 마치면서 현재 라오스 지역 내 영·유아 80명을 대상으로 보육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불교사회복지 모델을 현지에 전수하는 등 라오스 내 유치원의 선도적·모델적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본 라오스 드림센터 유치원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안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라오스 지역 내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바랍니다.

후원문의 02-723-5101~2

후원계좌_하나은행 271-910006-03104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월드머시코리아, 베트남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NGO 월드머시코리아(대표 현진스님, 여의도포교원)는 지난 9월3일부터 9월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구치현 중립하동과 띠이닝성 장방현 안화동 지역에서 새 학기를 맞아 중립하와 라반데 초등학교 60명과 안화, 중립 중학교 학생 40명, 광중, 웬자이 고등학교 학생 30명과 지방 현에서 선발된 대학생 20명에게 희망 장학금 1억1천5백5십만 동베트남 통화단위를 전달하였다.

희망 장학금은 웬자이, 광중(QUANG TRUNG) 고등학교의 새 학기 개교일에 맞춘 전교생 축제의 자리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정진하며 희망의 꿈을 가꾸는 사람은 결코 불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현진 스님의 희망의 말씀과 함께 전달되었다. 초등학교생, 중학생, 대학생(120명)에 대한 희망 장학금은 구치현과 장방현의 호치민사무실에서 당 지방자치장의 참석하에 전달되었다. 이 자리에서 현진스님은 행운을 주는 베트남 식 의식으로 일일이 학생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지금은 조금 어렵다 하여도 열심



(광중고등학교에서 위 장학금 전달식)

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행복한 미래가 있다”면서 부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 뒤 내년에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스님은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양 애촌의 가정방문하여 병고에 아파하는 어머니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애촌 학생을 내년에 한국에 데려 오기로 약속하고, 우수한 성격으로 의과 대학에 합격하고도 가난 때문에 입학 포기한 장국일 학생에게는 내년에 다시 합격한다면 등록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후원문의 월드머시코리아 사무국 070-4411-9136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코리안퍼레이드 동참

해마다 10월이면 미주한국일보 주관으로 맨해튼 6 애비뉴를 따라 38가에서 27가까지 코리안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해외특별교구가 설립되면서 올해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지원을 받아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뉴욕불교 신도회, 불광한국문

화학교, 선재학교 등이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한국불교 문화를 알렸다. 세계에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린 뜻 깊은 행사를 사진으로 감상해 본다.

글_ 미동부특별교구 총무 문종스님



LA 고려사, 추석 맞아 합동 조상 천도재 봉행

지난 9월 30일 LA 고려사에서는 추석을 맞아 조상 합동 천도재를 봉행하였다. 마침 일요일인 관계로 신도들이 편하게 절에 나왔다. 행사가 주중에 있으면 바쁜 생업 때문에 절에 못 나와서 앞당기는 경우가 많다. 서래대학에서 공부 중인 청강 도반스님과 태국스님 두 분이 와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회주스님은 법문 통해 다섯 가지의 질문에 대해 말씀하셨다.

첫째, 두 마리의 뱀이 있는데 어떻게 암수를 가릴 수 있는가? 둘째, 꼬끼리의 무게를 어떻게 잴 수 있는가? 셋째,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어미와 새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넷째, 한 바가지의 물이 큰 바다보다 어떻게 많다고 할 수 있는가?

첫째 답은 뱀 두 마리를 비단 위에 놓으면 움직이는 뱀은 수놈, 가만히 있는 뱀은 암놈. 둘째, 꼬끼리를 배에 실어 무게를 잰



후, 다시 같은 무게만큼 돌을 올려서 그 돌의 무게를 잰다. 셋째, 먹이를 주어보면 어미 말이 새끼에게 먹이를 밀어준다. 넷째는 화두로 숙제를 내셨다.

화두 하나 가슴에 안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던 조상님들의 바람처럼 모두 모여 합동 조상 천도재를 지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조상님의 은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글_ LA 고려사 주지 묘경스님

북가주 청년연합모임, 정기모임 개최

북가주 청년연합모임(TARA)은 지난 10월 6일 보리사에서 정기 모임을 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법회는 칠정례, 육바라밀 독송을 함께하고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참선 시간을 가졌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되돌려 각자 살아온 살림살이를 풀어놓는 시간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에서 잠시 각자 자신의 삶에 되돌이표를 찍어보는 시간이다. 지난 9월 15일 사찰에서 짝을 만나 결혼식까지 한 전 동식, 정명아 커플은 타라 회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다는 등 각자 삶의 굴레 안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였다. 한편으로는 가족과

주변을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9월 법회에서 주제로 주어진 "가장 미워하는 것"에 대한 법회가 계속되었다. 타라 법사(형전스님)는 원을 만들어 서로 바라보게 하고 가운데 허공에 큰 항아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한 미움들을 그 속에 풀어 넣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미워하는 사람, 게으름, 이기주의 등을 전부 또는 조금씩 풀어놓는 연습이었다. 용기가 없어 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씩 세상에 문을 여는 법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10월의 과제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오는 숙제를 받았다. 90여 분간 이어진 법회가 끝나고 타라는 12월 21~23일 리노 보리사에서 있을 캠핑 계획을 의논했다.



타라는 부처님 품 안에서 조금씩 부처님을 닮아가는 젊은 불자들의 모임으로 부처님 법을 재미있게 품어가는 법회를 하고 있다. 6시가 넘어서 저녁 공양을 하고 헤어졌다. 이번 법회에는 새롭게 3명의 젊은 불자들이 함께했다.

글_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뉴욕 불광선원, '777 특별기도 회향법회' 봉행

10월 7일 오전 11시 뉴욕 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에서는 아주 특별한 법회를 봉행했다. 2년 전인 2010년 9월 5일 '소원 성취 및 위기극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77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777 특별기도 회향법회'를 마련했다. 주지스님은 새로운 법당을 건립하면서 밀려있던 용자를 2년여에 걸친 기도를 통해서 다 갖고 회향을 하였기에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불경기 때문에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직 기도로써 777일 동안 꾸준히 정진한 것이다. 2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하신 분들에게 만발공양을 했으며, 특별 공연으로 아름다운 재즈선율을 제공하여 기쁨을 함께 나눴다.

글_ 불광선원 총무 문종스님

www.bulkwang.us



[기고] 오레곤 포틀랜드 보광사, 우리는 오레고니안(Oregonian)입니다

며칠 전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저희 다음 달에 뉴욕가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이런…… 어찌지요. 스님이 자리를 옮겼어요. 포틀랜드 보광사에 있어요.” 다시 불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포틀랜드가 어디예요??”

포틀랜드에 살면서 가장 자주 듣는 난감한 질문입니다. 포틀랜드는 유독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미국 여행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포틀랜드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시애틀 근처라 얘기하면 대부분 그때야 “아~!”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포틀랜드는 그리 큰 도시는 아니지만, 미국에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인텔의 본사가 있는 도시이며, 스포츠 업계의 대명사 나이키가 탄생한 곳입니다. 나이키 창시자 필립 나이트의 모교인 오레곤 대학은 속된 말로 나이키의 빵빵한 지원을 받는 부자 대학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모교인 리드 대학교도 바로 포틀랜드에 있습니다. 서부의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이지만, 대학에 어떻게 순위



(만자니타 해변에서 보광사 불자들과 친목 도모를 위한 आयु회를 하고 있다.)

를 매길 수 있느냐며 대학 순위 리서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명문대학교 순위 표에선 찾아볼 수 없는 숨겨진 보석 같은 대학교입니다. 포틀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없는 슈퍼마켓도 갈 수 없는 미국에서 자전거가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포틀랜드 시내의 모든 전철이 무료입니다. 포틀랜드는 미국의 커피 수도로 불립니다. 시애틀에서 시작된 스타벅스 체인점이 전 세계를 덮었지만, 바로 옆 도시 포틀랜드에서는 맥을 못 चु니

다. 포틀랜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프렌차이즈나 대량생산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작은 개인 카페들이 직접 커피를 로스팅하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빈의 계량화된 커피 맛은 까다로운 포틀랜드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한 시간 반 거리에 해발 4000고지를 훌쩍 넘기는 만년설의 설산들, 기암절벽과 함께 장관을 이루는 서부해안 등등 뛰어난 자연경관 또한 오레곤 포틀랜드의 자랑거리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온으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춥지 않은 이 곳에 대한불교조계

종 영축총림 통도사 미서부 분원 보광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레곤의 한인 수는 약 3만에 이릅니다. 다른 해외 한인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포사회는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소수의 포틀랜드의 한인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1년이 흘렀습니다.

인간은 본능에 따라 주변과 연결되어 있기를 욕망합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르러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에고(ego)에 투과된 그들의 무상함을 말씀하시며 중생들이 바른 견해를 가지기를 가르치셨습니다. 31년 전 불자들의 작은 소망인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우고자 하는 정성이 모여 오늘의 보광사를 이루었습니다.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머무르지 않는 마음 씀을 말씀하셨으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어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레고니안(Oregonian)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글_ 보광사 주지 세등스님

오레곤 포틀랜드 보광사 +1-503-760-4497

샌프란시스코 보리사, 모두가 하나된 추석법회

지난 9월 30일 보리사(주지 형전스님)는 추석 법회를 봉행했다. 전야제로 ‘보리한국 문화학교’ 아이들이 송편을 빚어 부처님께 올리고 30일은 1부 기도법회 2부 법문 3부 차례 제사 법회를 지냈다.

50여 명이 참석한 추석 법회는 고국에서 지내는 차례 명절을 사찰에서 다 함께 덕담도 나누며 가족같이 지내는 시간이다. 주지 스님은 불교 안에서 추석은 “차를 올리는 제사가 바로 차례”라는 이야기를 하며, 불교식 제사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강조하며 부모님과 자식들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법문을 했다.

12명의 식구가 함께 참석한 수빈, 성재

네 가족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이민한 대부분 가족이 3~4명에 불과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손자 등 삼대에 걸쳐 많은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 나머지 불자들이 부러워했다.

법회가 끝나고 나서는 한의사 문성범 법우님의 아픈 불자들을 위한 무료 한방 건강 상담을 했다. 보험이 없어 한의원 방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해주었다.

가족이 그림고 고국이 그리운 명절이다.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법회를 보리사에서 볼 수 있다.

글_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www.borisa.org

워싱턴 법화사, 진심있는 도량 만들고자 개원

“비록 작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한 조각이라도 진심이 될 수 있는 도량이 됐으면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워싱턴 법화사(주지 월스님)가 얼마 전 애난데일에서 개원했다. 비구니인 월스님이 창건한 법화사는 올 3월 부처님 점안법회를 열고 불법을 전하고 있다. 스님은 “이민사회의 한인들의 삶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하는 것을 봤다”며 “산속에서 정진만 해선 안 되겠고 그간 공부한 곁동포들에게 되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창건 취지를 밝혔다.

월 주지스님은 24살에 부산 범어사에서 상덕스님을 은사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

구니계를 받았다. 계룡산 동화사 강원을 거쳐 1994년 중앙승가대를 마치고 선방 생활을 해왔다.

법화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정기법회를 갖고 월 2회는 철야기도를 한다. 또 월, 수요일 저녁 7시~9시에는 참선도 하고 있다. 월스님은 “기도 중심 도량으로 이곳을 찾는 분들을 편안하게 받드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며 “부처님과의 인연과 공덕으로 고요한 씻김과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_ +703-348-9787

주소_ 7202 Poplar St, Annandale, VA

(코리아 모니터 맞은편 건물 2층)

뉴질랜드 묘심사, 부디스트네트워크 모임 개최

지난 9월 16일 뉴질랜드 묘심사에서 이례적인 모임이 있었다. 작년 6월 달라이 라마존자께서 다녀가신 직후 크라이스트 처치에 부디스트네트워크가 생겼는데 이번에 묘심사에서 모임을 한 것이다. 약 20명의 키위와 태국, 스리랑카, 티베트 스님이 참석해서 명상그룹 또는 각 사찰에서 하는 명상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귀의와 10분간의 명상시간 후 묘심사의 본각스님이 미리 준비했던, 우리의 현실 문제들과 명상의 조화에 관해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에 온 사람들은 현재 명상이나 불교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열린 마음과 자유로운 지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시달리는 문제들 즉 외적으로는 자연재해와 질병, 내적으로는 탐진치와 5장애 등과 우리의 명상수행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았다.

본각스님은 최근까지 묘심사에서 했던 차명상을 소개하면서, 걷기명상이나 먹는 명상과 유사하게 일상 속에서 차와 차도구를 이용하여 매 순간 마음챙김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었다. 묘심사에서 한 달에

한 번 법회 후 하는 발우공양도 소개했는데 차와 발우공양에 대한 키위들의 관심이 높았고 직접 경험하고 싶어했다.

태국의에 숫차이(sudchai)스님은 우리가 매 순간 마인드풀하면 모든 행위가 명상이 된다고 하면서 일상에서 가족을 대할 때도 마인드풀하고, 항상 스승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와 티베트의 명상법 소개 후 요가선생님인 마크가 요가와 기공을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티베트의 아니인 산제이스님은 수행 중에 호흡과 걷기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얼마나 마인드풀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고, 마인드풀의 결과로 우리 생각과 감정을 정화하고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서로 격의 없이 각각 자신이 하는 수행에 관해 토론하고 듣기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자아실현과 아이디어 창조는 기회는 매 순간 순간에서의 수행에 있을 것이다.

글_ 뉴질랜드 묘심사 주지 본각스님

+070-8795-6339



부탄, 세계 최초로 100% 유기농 국가에 도전

녹색 경제 정책으로 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하기로 유명한 히말라야의 부탄왕국이 집에서 기른 채소와 농산물을 100%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려 한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작은 불교국가 부탄은 생태환경과 정신 건강을 우선시 하는 독특한 경제개발 정책을 펴는 나라로 전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국민총생산(GDP)보다 국가 행복 지수를 중시하는 부탄의 경제 발전 모델은 UN과 특히 영국과 프랑스 지도자들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다. 1999년까지도 텔레비전을 금지했고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대중관광을 불허했던 부탄은 최근에는 매주 목요일을 보행자의 날로 정해 도심에 차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부탄 정부의 이러한 친환경 정책 의지는 앞으로 화학 비료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서 10년 이내에 부탄인들의 주식인 밀과 감자, 과일을 100% 유기농으로 재배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에서도 확인된다.

부탄의 농업부 장관은 “부탄은 우리가 지구에 끼치는 엄청난 압력을 고려해서 녹색 경제 정책을 해 나가기로 했다. 집약 농업을 하면 화학비료를 많이 써야 하는데 이것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탄의 인구는 70만을 겨우 넘으며 이중 3분의 2는 비옥한 남부 평야와 북쪽 히말라야의 높은 정상과 깊은 계곡에 자리한 농가들이다. “현재도 길이 나 있고 교통이 편리한 농가만이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탄의 화학비료 사용은 이미 국제적인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이다.”라고 장관은 말한다.

조용한 수도를 감싸고 있는 깊은 골짜기에서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농촌이 입은 부족으로 당면하게 된 큰 도전이다. 이외에 요소비료를 가끔 사용하고 밀입에 살균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단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유기농을 실

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즉시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선별해둔 상태이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갈 특정 지역의 농작물도 선정했다.”라면서 장관은 작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정책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부탄의 “100% 유기농” 브랜드에 대한 유일한 경쟁자는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나우에 섬이다. 나우에 섬의 인구는 1,300명이고 2005~2020년 사이에 목표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UN 식품농업기구의 세계적 유기농전문가인 나디아 시아 라바는 유기농 식품 시장과 이들 상품의 높은 가격은 작은 나라에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아주 작은 나라들은 생산량에 있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품질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부탄은 비료와 이의



▼ 부탄 의회 전경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수입 비용을 절감하고 외화 부족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부탄의 한 농부는 다른 농부들도 국가정책을 지지한다면 “10년 전에 이미 화학비료가 농사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완전히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90% 정도는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apa-APB [2012. 9. 7]

파키스탄, 불교유물 밀매와의 전쟁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파키스탄이 세계로 밀반출되는 자국의 불교 유물에 홀러드는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유물 밀매 암시장은 세계적인 문젯거리로 전문가들은 밀매량이 일 년에 수십억에 달한다고 평가한다. 이들 시장의 주 대상은 파키스탄과 같이 문화유산은 풍부하나 이를 지키기 위한 자력이 없는 나라들이다. 불법도굴 유물이 밀반출됨에 따라 학자들은 유적지 역사를 기록할 기회를 잃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관광지로서의 잠재 자원을 강탈당하고 있다. 불교 유적이 많은 스왓 계곡은 북서부의 높은 산악 지대로 푸른 초목으로 뒤덮여 있고 1000년 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가로질러 있던 불교왕국 간다라의 일부분이다.

경찰은 7월에 남부 항구 도시 카라치에서 트럭으로 북부지역으로 운반해 밀반출하려던 유물 400여 점이 담긴 컨테이너를 압수했다. 이중 40%가 진품으로 그 가운데는 수백 만 달러에 상당하는 1800년 된 100여 점의 불교 조각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스왓 계곡 근처에 사는 한 전직 경찰의 말에 의하면 1947년 파키스탄이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10년간은 불교 유물을 국외로 빼돌리는 데 사실상 어떤 제재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1975년에 정부가 밀매를 처벌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지만 고고학 연방 정부 대표 카자르는 재정 부족으로 법집행이 어려워져 적발된 사람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만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맨해튼의 한 미술품 거래상인 수바쉬가 인도 근처에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유물을 밀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뉴욕의 미술관과 인터넷을 이용해 밀매된 유물을 박물관과 개인 소장자들에게 팔았다. 일군의 파키스탄 인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복제품을 만들어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팔기도 한다.

불법적 유물거래 문제에 정통한 글래스고 대학의 네일 브로디는 “고대 유물을 사들여 암거래 시장을 키우고 있는 개인 수집가들에게 당국이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탈리아나 영국의 박물관에서는 경위가 의심스러운 유물을 취급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지만 미국의 박물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도굴로 인한 파괴로 유적지의 고고학적 기록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ZARAR KHAN [2012. 9. 4]



(부처님 고행상-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 소장)

회교도들이 신성모독을 이유로 불교사원 파괴

종교적으로 예민한 사항이라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모욕이라 느껴졌다 해서 법률을 위반해서도 안 된다. 또한 그것을 이유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을 처단할 수 있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근자에 수천 명의 방글라데시 회교도들이 불교사원을 파괴하고 약탈한 사건은 이러한 왜곡되고 위험한 사고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폭도들은 한 젊은 불교도가 불에 탄 코란 사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면서 그 때문에 화가 났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존중받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한 존중은 어디에 둔 것이냐고?

방글라데시에서 소수자인 불교도들은 전통적으로 다수인 회교 사회와 잘 지내왔다. 그러나 불교사회는 현재 분리주의자들이 자행한 폭력으로 공포심이 만연해 있다. 이번 사건에 경각심을 갖고 정부와 종교계 지도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폭력이 회교의 이름 하에 자행됐고 원래 종교가 상징하는 가치에 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의 소수 종교들이 종종 공격을 받곤 하지만 회교권 나라의 소수 종교는 특별히 더 취약하다. 이는 ‘아랍의 봄’을 맞은 회교 정부의 집권에 따른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The Globe and Mail [2012. 10. 2]

국제불교 단신

◆ 인도 마하보디 사원을 관리하게 된 불자들

인도 대법원은 9월 21일 그동안 인도 정부가 관리했던 보드가야의 2500년 된 마하보디 사원의 관리권을 불자들에게 전적으로 이양하려는 불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인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하보디 사원은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로 기원전 3세기에 아쇼카 대왕이 세운 것이다.

◆ 스리랑카, 산치불교대학 건립

스리랑카가 고대 인도의 불교대학 탁사실라와 날란다를 모델로 불교와 인도학을 교육하는 산치불교대학을 건립한다. 이를 기념해 라자팍사 대통령은 지난 9월 인도 보드가야에서 가져온 보리수 나무 묘목을 100에이커에 달하는 대학 건립 터에 기념식수했다.

◆ 말레이시아, 세계불교회의 개최

‘부정적인 감정 초월하기-행복한 웰빙의 삶 창조를 위해’를 주제로 세계불교회의(World Buddhist Conference)가 말레이시아에서 11월 3~4일 개최된다. 기조연설을 맡은 타이 시투파 린포체를 비롯 뿌라 수간다, 계쉬 다들 남갈, 툽텐 초기 등 세계 저명 학자들이 참석한다. www.wbc.my

집중조명

여성의 리더십과 승가의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

슈라바스티 사원, 미국에서 최초로 탄생한 승가공동체

워싱턴주 뉴포트의 스포케인에서 한 시간 거리의 숲 속에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따라 서양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행하는 아담한 승가 슈라바스티 사원(Sravasti Abbey)이 있다. 2003년 톨텐 초드론 스님이 창건한 슈라바스티는 미국 최초의 미국인에 의한 승가공동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집중조명에서는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를 비롯한 많은 승가가 공존했던 사위성의 이름을 딴 사원 슈라바스티에 대해 알아보자.

창건자인 초드론스님은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는 비구니로 1997년 카브제 링 린포체 하에서 비구니계를 받았고 이후 1986년 중국에서 정식으로 비구니계를 다시 받았다. 1997년 수계 후 네팔의 코판 사원에서 수년 간 살았고 프랑스 한 비구니 사원에서 3년을 지낸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절에서 살았던 시간이 소중했다고 말한다. 초드론스님은 서양인들이 모여 교육 받을 수 있는 절을 짓는 것이 오랜 동안의 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의 관심은 온통 망명 중에 있는 티베트 문화를 지키는데 쏠려 있어서 다른 여력이 없었다. 따라

서 서양인 불자들은 스스로 미국에 승가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미국인 스님이 직접 나서서 건립한 것이 바로 스포케인의 슈라바스티 사원이다.

■ 미국에서의 승가공동체 탄생 배경

부처님 재세 시 이래 공동체적 삶은 승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개개인은 세속의 집과 직장을 떠나서 승가의 구성원이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거친 돌들이 한 통에서 서로 부딪혀 깎이면서 나중에 둥글어지는 것처럼 스님들은 불법에 헌신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 서로를 타마하면 소통을 잘 하게 되고 수행 또한 깊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에 불교가 들어왔으나 아시아와는 달리 승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었다. 대부분의 불교단체들이 승가가 아닌 재가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승가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티베트 겐룩과의 경우 승가공동체 생활을 하고 따라서 스님과 법사를 절에서 지원하지만 서양인 스님들을 똑같이 지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티베트 전통을 따르는 미국 스

님들이 승가공동체의 삶을 유지할 곳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드론스님은 서양인 남녀가 지원을 받으며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할 수 있는 슈라바스티 사원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슈라바스티 사원의 독특한 점은 남자와 여자가 계율에 따라 따로 지내지만 승가의 구성원으로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동등하게 수행하고 배운다.

■ 슈라바스티 사원의 활동

슈라바스티의 하루 일과는 새벽 5시 부처님께 청수를 올리고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5시 30분에 한 시간 반 동안 참선과 초드론스님의 간단한 법문이 있다. 아침 공양 후 사시 예불 전에 경전을 공부한다. 이 때 초드론스님이 티베트 논서 랍립과 로종 등을 가르치며 스님의 지도하에 대중들이 돌아가며 질의하고 응답하는 문답식 수행을 한다. 이 수행을 통해 대중들은 불교의 일상생활에의 응용과 친구와 동료들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법을 익힌다. 저녁 예불 후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다시 아침과 같은 문답식 수행과 자비선을

한다. 대중들은 이 일과를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 단순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들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모든 존재들을 위해 헌신하려는 서원을 실천한다.

이외에도 슈라바스티에서는 매년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승가 생활 체험하기(EM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개월간의 겨울 동안 수행을 한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의 불교적 해법을 수행을 통해 모색하는 일주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전화로 불교를 가르치고, 주변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슈라바스티 사원은 재가자 후원조직인 FOSA의 네트워크로 운영된다. 이들 재가자들은 음식, 의약품, 가사 등의 필수품을 스님들에게 공양하며 스님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 슈라바스티 스님들의 꿈

현재 슈라바스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5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머물고 있다. 율장에는 비구니계를 주기 위해서 10명의 비구와 10명의 비구니가 있어야 하고, 이 스님들은 적어도 10년의 법랍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슈라바스티 사원 스님들은 계를 주기에 충분할 정도의 스님들이 나와서 승가공동체가 지속되기를 서원하고 있다. 또한 스님들은 세계 인구의 반인 여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비구니의 배출도 서원하며 정진하고 있다.

www.sravastiabbey.org

① 슈라바스티 사원의 겨울 모습 ② 강의를 듣고 있는 스님들 ③ 톨텐 초드론스님



참선으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데이브

죽음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두려움이다. 마음 속 깊이 숨겨 두었다가 막상 당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혼비백산한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52살 데이브 토마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교의 깊은 신심으로 극복했고 지난 20년 선수행을 통해 불자로서 거듭났다.

아미타불교센터를 다니는 전직 신문 기자 데이브는 죽어가는 종달새가 생각만큼 끔찍한 것은 아니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미타센터는 데이브의 수행을 지도하는 켈장스님 등 불교성직자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친절함이 온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은 켈장스님은 커피를 준비하기 위해 방을 나섰다. 지난 20년 동안 5,000명 이상 불자들의 수행처였던 아미타센터는 이제 비숍스톤 지역의 상징이 되었다. 데이브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고받고 나서야 참선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나는 2010년에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 없이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의사는 폐섬유증이 폐 속의 폐포가 산

소를 점점 혈류에 내보내지 못하는 병으로 폐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참선으로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선은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이고 더 실제적으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호흡이 좀 편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데이브는 산소통을 달고 다니는데 코로 산소를 넣어 호흡을 돕고 있지만 참선을 할 때는 산소통이 필요 없다고 한다. 정신적으로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산소량을 재기 위해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받는데 참선 중일 때는 산소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한다. 죽는 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세상을 완전히 달리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죽는다는 것이 꽤 근사한 것입니다. 최근 집 근처 나무들 사이를 걷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조깅하던 때를요. 지금은 숨을 쉬기 위해 어렵게 어렵게 발을 떼고 있

지만 대신 나무 하나하나, 꽃들.. 세상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세세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브는 자신이 전형적이고 보수적인 기자였다고 하면서 불교는 1980년대에 접하게 됐다고 말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단란한 가정을 가졌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마음 한편에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선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러나 냉소적인 기자로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5번쯤 수행 모임에 참석해본 뒤 이제 그만두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뭔가 확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적어도 한 주 동안은 끔뎀 앓았을 그런 큰 상실감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참선으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고요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전 공부와 함께 참선을 꾸준히 했고 깊은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생겼지요. 처음엔 동료기자들의 놀림도 있었지만 내 안의 변화를 보자 그들도 서서히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로 수행을 하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데이브는 1990년대에 브리스톨에 이사 와 기자생활을 했지만 건강이 악화되자 몇 년 전 퇴사했다. 삶의 끝이 다가오자 데이브의 받아들임의 수준도 더욱 향상됐다. “지난 두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죽음을 두 번 예행연습한 셈이죠.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가진 슬픔을 주제로 자비선을 했는데 이를 통해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순수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요. 진단을 받은 뒤 아이들이 폐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난 참선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다음에 응급실로 실려 갈 때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삶의 마지막 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참선하면서 배운 것을 다 실천해 볼 수 있으니까요.”

데이브는 다시 한 번 미소지었다. 그리고 법당의 거대한 부처님을 바라보더니 이내 켈장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제3회 불교계 이주민정책 토론회 ‘한국사회의 이주현상과 불교적 해법’

지난 10월 12일, 빛고을 광주에서는 ‘한국사회의 이주현상과 불교적 해법’이라는 주제로 “제3회 불교계 이주민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도제스님)가 주최하고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스님)가 주관하였다. 토론회는 도제스님의 ‘한국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이라는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과 불교계 활동이라는 3개의 주제로 열린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의 이주민지원단체의 실무자들도 발표와 토론을 맡음으로써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부문에서는 이주성 센터장(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이 “이주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한국생활에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직무 스트

레스 중 직무 위험성은 생활만족도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업무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밝혔다.

다문화가족 부문에서는 김남욱 전문연구원(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은 “다문화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법적 과제”란 주제로 현행법상의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과 과제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 현재 다문화 한부모 가정인 김혜옥씨가 토론자로 나와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진오스님(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은 작년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쉼터 마련의 경험 등을 중심으



로 그 필요성을 다시금 주장하였다.

불교계의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는 김선임 박사가 “불교계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불교계의 통합정책 검토”이라는 주제로 불교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웃종교인 천주교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통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나 현재의 불교계 이주민지원단체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교계가 출신 이주민들이 다른 종교로의 개종까지 발생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불교계 이주민정책토론회는 매년 횡수를 거듭하며 점점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이주민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주민지원단체 활동가들은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광주지역 단체를 방문하여 서로의 활동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마주협 사무국 02-720-7095

캄보디아 추석 ‘제4회 프썸번행사’ 열려

10월 14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400여 명의 캄보디아 이주민들의 참여로 프썸번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프썸번은 우리네 추석과 같은 명절로 캄보디아인들은 7개의 사원을 순례하며 밥과 돈을 서로 나누고, 죽은 조상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기도를 올린다.

캄보디아 법당의 름사로스님은 “4회째 맞이하는 프썸번 행사에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참석해 기쁘며, 또한 프썸번 행사와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창립되는 캄보디아불자회를 통해 앞으로 캄보디아인이 조화롭게 지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재한캄보디아협회 창립총회



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름사로스님은 “캄보디아인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과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불교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싶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마주협 사무국 02-720-7095

다문화가족자조모임 너나들이 전통공연발표회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법인 행복한이주민센터 상임대표 석정희)는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자원봉사형 자조모임 너나들이(너나나 허물없이 지낸다)는 고유의 딸의 전통공연발표회가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각국의 전통춤과 전통노래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인식 개선 및 각국의 문화전파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오산시의회 김미정의원(왼)은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이 참여한 데는 센터가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아졌고, 기관 네트워크의 힘이 대단하다.”고 호평을 하였다.

초청공연에서는 오산시자원봉사센터에

서 후원한 풍물공연과 부채춤 등 한국전통공연부터 시작하여, 언어영재교실의 다문화화녀의 중국전통노래공연인 호랑이 두 마리 외 4곡, 일본전통춤공연, 중국전통공연과 필리핀 이민자들이 사이의 “강남스타일” 춤공연, 베트남 전통춤 공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병희센터장은 “고유의 한국말인 ‘너나들이’를 설명하면서 모두가 허물없이 지내길 바란다. 더욱이, 오산시민이 주체가 되어 다문화센터의 역량을 키워내는 힘이 바로 지역의 힘이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오산행복한이주민센터 031-374-5554



(좌)다문화가정의 전통노래 공연 (우)이주여성들의 한국전통 부채춤 공연

동두천이주민센터장배 전국 네팔인 축구대회 개최

지난 9월 29일(토)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한국YBA동두천이주민센터가 주관한 “전국 네팔인 축구대회 2012” (대회장 우르겐 라마)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아침 8시, 사회를 맡은 동두천이주민센터 네팔인 신도회(YBA Sewa Kendra)



프락카스 씨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개회식에 참여한 오세창 동두천 시장의 시축을 신호로 본 경기가 시작되었고, 부산, 포항, 거제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12개 팀이 우승컵을 향한 각축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 경기장을 찾은 네팔인들은 선수 포함 700명이 넘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이런 대회가 동두천에서 개최되어 기쁘다. 동두천을 찾아주시는 네팔인들을 환영한다”고 선수들에게 인사했다. 카만 싱 주한네팔대사는 “이 자리를 열어준 주체 측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동두천시가 네팔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우승은 서울 동대문 마냥 FC, 준우승은 안산 루판데히 FC가 각각 차지했고, 카만 싱 네팔 대사가 늦게까지 남아 우승 시상식을 한 가운데 저녁 8시 30분 모든 일정이 끝났다.

한국YBA 02-6414-1034

방글라데시 종교평화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 활동

지난 9월 말 방글라데시 치타공지역에서 모슬렘에 의한 무자비한 불교탄압이 발생했다. 이에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방글라데시인들을 중심으로 10월 초에는 주한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시위를 진행하였으며, ‘방글라데시 종교탄압 중지와 종교 간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정진’을 체계사에 설치된 생명평화1000일정진단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7~9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인들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한국 불자들이 함께 ‘종교탄압 중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방글라데시 평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현지 피해를 당한 사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을 위한 후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김포마하이주민센터 031-985-0654